



마. 단군천조광명도덕보본회(檀君天祖光明道德報本會)의 해인

이 교단은 한얼수도원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정효순(鄭曉純, 1913-?)이 창립하였다. 그는 해인은 후천개벽(後天開闢)에 나타나 민생을 구제한다는 인장(印章)이며, 해(海)는 삼(三) + 팔(八) + 모(母)로 삼인모일인(三人母一印)을 합성한 문구라고 해석했다. 이는 세 사람의 어머니가 합하여 하나에 귀일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세 사람의 어머니는 공자, 예수, 석가의 도(道)이며, 이들은 모두 단군신앙의 삼위일체사상으로 귀일한다고 풀이했다. 따라서 그는 단군(檀君)의 홍익인간(弘益人間) 이념에 귀의하여 이화세계(理化世界)인 후천세계(後天世界)라는 지상천국(地上天國)을 건설한다고 주장했다.

바. 단군대황전(檀君大皇殿)의 해인

단군대황전을 세운 박노철(朴魯哲, 1922 - ?)은 26세 때 꿈에 단군의 신명이 나타나 칼을 공중에 던지자마자 칼이 수만 조각이 되어 흩어졌는데, 그 파편이 땅에 떨어지자 다시 거두어들여 삼각(三角) 형태의 도장을 만들고 그의 손에 찍어주면서 "이것이 바로 해인이다. 나를 믿고 정성을 들이면 구제창생(救濟蒼生)의 힘을 주겠노라."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해인은 앞으로 계룡산에 도읍하고 천하를 호령할 진주(眞主) 정씨왕(鄭氏王)인 정만인이 가지고 나올 비기(秘器)라고 믿는 비결파(秘訣派)들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사. 지상천국건설원(地上天國建設院)의 해인

용화대도(龍華大道) 지상천국건설원은 증산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교단인데, 구원의 상징물로 해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교주 임청림(林靑林)은 1918년 경북 상주군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건기(建基)이지만, 교단에서는 청림도사(靑林道士)로 불린다. 충남 대전시 변동에 있는 이 교단에서는 감제 금산사의 미륵불을 축소하여 모시고 있다.

1973년 계룡산 제자봉 삼일전에서 최초로 단체를 창립할 때의 이름은 지상천국건설연구원이었고, 1981년에는 지상천국건설원으로 바뀌었다가, 1984년부터 용화대도 지상천국건설원이라고 부른다.

임청림은 1970년대 초에 대전 근처의 식당장에서 50일 기도를 수행한 끝에 인류 구원을 뜻하는 물건인 해인(海印)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말세의 인류 구원을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무선악(無善惡), 삼정신(三正信), 해인조(海印造), 양심평등(良心平等)'이라는 원리를 제시한다. 이 원리는 주문으로 외우기도 하는데, 세상을 구원할 13자 주문이라고 믿는다.

이 교단에서는 해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印)'을 뜻하며,

신분증과 같이 개인의 인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임청림은 종교관, 사회관, 국가관이 각기 100점 만점으로 채점될 날이 올 것인데, 이때 합계 최저 210점은 되어야 '해인'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림도사(靑林道士)가 인류 평화를 실현하고자 해인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주장한다.

이 교단을 상징하는 마크는 태극 모양의 형상에 '해(海) 자와 '인(印) 자를 써넣은 것으로, 해인(海印)은 말세에 인류를 구원하는 상징적 물건으로서 이를 얻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 교단에서 주장하는 형태로서의 해인은 외해인(外海印)과 내해인(內海印)이 있다. 외해인은 뺏지의 형태로 되어 있고, 내해인은 신분증 형태로 만든다. 특히 내해인은 외해인과 달리 절대로 변형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내해인은 증명서 양식으로서 사진을 붙이고, 일련의 고유번호를 매기는 것은 물론 생년월일과 인적 사항도 자세히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임청림은 해인을 만들어 인류에게 보급할 발간 기구가 장차 만들어질 것이며, 시범적으로 1984년에 해인을 만들어보았다고 한다.

주문으로 믿어진 해인

가. 갯정유도회의 『해인경』

갯정유도회(更定儒道會)는 원래 일심교(一心敎)라고 불렸으며, 강대성(姜大成, 1890 - 1954)이 세운 교단이다. 그는 1943년에 『해인경(海印經)』이라는 주문을 제시하고, 이 주문을 외우면 도통이 되어 조화를 임의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일심교 신도들은 재래의 도참설(圖讖說)에 정도령(鄭道令)이 해인(海印)이라는 조화의 신기(神器)를 가지고 계룡산에 세계통일 정부를 세우게 된다는 설이 바로 일심교의 교주인 강대성의 『해인경』의 묘리(妙理)를 말한 것이라고 믿었다.

『해인경』은 책자가 아니라 "우성재야(牛性在野), 천지부모(天地父母), 굴융합덕(弓乙合德), 흠시감혜(曄時感惠), 일심동력(一心同力), 세계소립(世界所立), 오주소립(吾主所立)."이라는 28자로 이루어진 일종의 주문이다. 『갯정유도개설』(1989)에 보면 『해인경』은 갯정유도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전이며, 삼재님이 역조창생을 살리려고 내려준 경(經)이라고 믿는다. 해인의 해(海)'는 온갖 강물이 모이는 곳이요, '인(印)'은 만인이 믿는 도장이니,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통일을 이루어 평화롭게 살 것을 인증한다는 의미라고 풀이한다.



강대성 영정

한국의 보물, 해인<53>

갯정유도회 신도들은 새 윤수의 개벽시(開闢時)에 한국 땅에서 세계를 통일할 천자(天子)가 나온다고 믿었는데, 이는 정감록비결신앙(鄭鑑錄秘訣信仰)에 근거를 둔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그러나 필자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감록』에는 해인(海印)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으므로 정확히 표현한다면 해인 신앙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갯정유도회의 신도들은 『해인경』을 하느님이 주신 신어(神語) 또는 천문(天文)이라고 주장하며, 여기에 온갖 조화와 진리가 들어있다고 믿는다. 이는 정만인 혹은 정도령이 해인을 가지고 나와서, 계룡산에 왕도(王都)를 정한 뒤 36개국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새 나라를 일으킨다는 도참설에 근거를 둔 것이며, 『해인경』에 보이는 “우성재야(牛性在野)”나 “굴융합덕(弓乙合德)”이라는 문구는 모두 참(讖)에서 인용한 것이다.

나. 아산의 『해인경』

『해인경』은 아산이 1945년 2월 대둔산에 있을 때 제자들과 더불어 읊었던 경문이다. 당시를 선천과 후천이 바뀌는 어려운 때라고 생각한 아산은, 중생을 제도하고 후천(後天)에 무사히 다닐 수 있도록 삼교(三敎) 성인(聖人)의 가피력을 절실히 염원했다고 전한다.

아산은 1947년 12월 대둔산 석정암(石井庵)을 폐문한 후, 108명의 제자를 데리고 연산에 있는 개태사(開泰寺)에서 이 경문을 읊으면서 이른바 '해인 행사'를 했다. 해인 행사는 제자 108명에게 '경(庚)'자에 해인(海印)이 찍힌 호신부(護身符)를 나누어주고, 뽕나무작대기에 오동나무 지계를 짙어지게 한 다음, 9명씩 12단위인 12금부(金部)로 대오를 지어 차례로 개태사를 통과하여 단군전(檀君殿)에 참배케 했던 행사다.

이때 김광영 보살은 아산의 해인 행사를 미리 알고 불전(佛殿)에 모셔두었던 백팔바가지에 밥을 담아 아산의 제자들에게 먹였다고 전한다. 그 후 아산은 국사(國師)로서 경세(經世)의 포부를 지니고 계룡산 국사봉(國師峯)에 거주한 뒤 신도안에 있는 불암사와 대전 지역에 머물면서 여러 행사를 주관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아산은 제자들을 안면도에 피신시킨 뒤, 해인을 부여에 있는 은산에 감추었다. 이때 어떤 사람이 해인을 찾으려 하자, 아산은 “(해인)을 찾지 마라. 때가 되면 임자가 나오는 법이다.”라고 제지했다고 전한다.

아산이 제자들에게 외우게 했던 『해인경』은 모두 64자로 이루어졌는데,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몽화령(聖夢化嶺) 현인범광(賢人梵光)

교도천사(敎道天師) 구묘역영(玖妙亦暎)

지심귀명례(至心歸命禮) - 절을 1번 한 다음 -

사방삼세(十方三世) 제망찰해(帝網剗海)

을 위한 까닭에 어떤 탐욕이 있는 듯이 나타내는 것이니, 일부러 나타내므로 한량없고 그치없는 중생으로 하여금 선한 법을 자문받고 구족하게 성취하게 한다. 이것을 일러 마음이 탐욕과 함께 나지 않고 탐욕과 함께 멸한다고 하느니라.

(사분승계본(四分僧戒本))

(석가계경(釋迦戒經))

世尊涅槃時 興起於大悲 集諸比丘衆 與如是敎戒 世尊열반시 흥기어대비 집제비구중 흥여시교계 세존께서 열반하시 때에 큰 자비를 일으키시어 모든 비구들을 모아놓고 이에 계를 가르치시기를

莫謂我涅槃 淨行者無護 막위아열반 정행자무호 내가 열반했다고 말하지 마라. 수행자에게 보호함을 주지 못한다.

석가세존께서 말하기를 내가 죽는 것은 진실한 열반(涅槃)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수행하는 자들이여 나를 의지해 봐야 보탬이 없을 것이며 특별한 보호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다.

我今說戒經 亦善說毘尼 我今說戒經 역선설비니 내가 이제 계경을 설하고 그 안에 또 한 계율을 잘 설하였으니

毘尼(비니): 석가모니(釋迦牟尼)가 제자(弟子)를 위하여 마련한 모든 계율(戒律).

我雖般涅槃 當視如世尊 此經久住世 佛法得熾盛 아수반열반 당시 여세존 차경구주세 불법득치성 내가 비록 반열반(般涅槃)에 들더라도 이 계경 보기를 부처님 보는 것 같이 하라. 이 경이 오랫동안 세상에 있게 되면 불법(佛法)이 왕성해지리니

소승의 부파불교(部派佛敎)에서는 열반에는 유여열반(有餘涅槃)과 무여열반(無餘涅槃)이 있다고 한다. ‘유여’란 의존해야 할 육신이 아직 남아있는 뜻으로 유여열반은 깨달음은 이루었으나 번뇌를 지닌 육신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무여열반은 완전한 열반, 즉 반열반(般涅槃, parinirva)으로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의지하고 있던 육신을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삶을 마치고 법신(法身)의 상태로 돌아간 열반이다.

출처 : 불교신문(http://www.ibulgyo.com) _ [해종스님의 승만경 강설] (24) 여래만이 반열반을 얻는다

以是熾盛故 得入於涅槃 이시치성고 득입어열반 불법(佛法)이 왕성해지는 까닭에 열반에 들 수 있게 되리라.*

::_()_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 말씀하시기를 《25회》

목차		
1. 선불가진수어록(仙佛家眞修語錄)	천재와 가뭄을 만나서 장차 말라 죽으려 하는데	를 내리시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열 가지 선한 법을 다 얻어 만족하게 하느니라.
2. 진삼귀의처품(眞三歸依處品)		
3. 무이경지품(無我境地品)	難陀龍王 憐愍衆生 從大海出 降澍甘雨	以是義故 諸佛菩薩 名善知識
4. 여래비장품(如來祕藏品)	난타용왕 연민중생 종대해출 갈수감우	이시 의고 제불보살 명선지식
5. 겁수품(劫數品)	난타용왕이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바다에서 나와 단비를 내리서	이런 뜻으로 부처님과 보살들을 선지식이라 하느니라.
6. 감로해인품(甘露海印品)		
7. 선지식품(善知識品)	一切叢林 百穀草木 滋潤眾生 일체중림 백곡초목 자운환생 일체의 모든 식물 백 가지 곡식과 초목이 윤택하게 되어 살아났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아늑다라삼막삼보리가 없었으며 선근(善根)이 없었고 보살 마하살이 없었고 선지식이 없었다. 미래세에 오시는 미륵부처님이 바로 선지식이요 대승이요 선근이요 보살 마하살이니, 그 분이 바로 아늑다라삼막삼보리 즉 지진정등정각(至眞正等正覺)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8.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		
9. 여래능력품(如來能力品)	一切衆生 亦復如是 일체중생 역부여시 일체 중생도 또한 이와 같다.	
10. 불법근본품(佛法根本品)		
7. 선지식품(善知識品)		
…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선지식(善知識)이 없었고 보살마하살(菩薩魔訶薩)이 없었으며, 아늑다라삼막삼보리(無上正等正覺)가 없었다. …		
〈열반경 권25 광명변조고귀덕왕보살품(涅槃經 卷二十五 光明遍照高貴德王菩薩品)〉 譬如大地所有藥木 一切叢林百穀 甘蔗花果之屬 비여대지소유약목 일체중림백곡감저화과지속 비유하면 대지에 약목과 일체의 식물, 백가지 곡식과 사탕수수와 꽃과 더불어 속한 것이	所有善根 將欲消滅 諸佛菩薩生大慈悲 소유선근 장옥소멸 제불보살생대자비 모든 인류에게 선근(善根: 선한 마음)이 장차 없어지려고 할 때에 부처님과 보살들이 큰 자비심을 내시어	善男子 從因緣故 心則生貪 從因緣故 心則解脫 善男子 因緣有二 一者隨於生死 二者隨大涅槃 선남자 종인연고 심즉생탐 종인연고 심즉해탈 선남자 인연유이 일자수어생사 이자수대열반 선남자야, 인연을 쫓아서 마음에 탐욕이 생기고, 인연을 쫓아서 마음이 해탈한다. 선남자야, 인연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생사를 따르는 것이며, 둘째는 대열반을 따르는 것이니라.
值天災旱 將欲枯死 치천재한 장옥고사	從智慧海 降甘露雨 令諸衆生具足環得十善之法 종지혜해 강감로우 령제중생구족환득십선지법 지혜의 바다로 쫓아 나와 감로의 비	



무진해회(無盡海會) 상주일체(常住一切)
불타야중(佛陀耶衆) - 절을 1번 한 다음 -
달마야중(達摩耶衆) - 절을 1번 한 다음 -
승가야중(僧伽耶衆) - 절을 1번 한 다음 -
유원삼보대자대비(惟願三寶大慈大悲)
수아정례(受我頂禮) - 절을 1번 한 다음 일어나서 -
명훈가피력(冥薰加威力)
원공법계제중생(願共法界諸衆生)
동입미타대원해(同入彌陀大願海)

성인의 꿈이 법으로 화하니, 어진 기운이요 하늘빛이로다.
교와 도로 천사(天師) 되시니, 옥(玉)도장이 묘하면서 또 한 빛나는구나!

지극한 마음으로 귀명례(歸命禮)를 올리나이다.

시방삼세에 걸쳐 천제(天帝)의 그물이 온 세상을 덮으시고, 한량없는 무리를 이루어 일체에 상주하시니, 부처 무리시여! 달마 무리시여! 승가 무리시여! 오직 삼보(三寶)의 대자대비를 바라오며, 나의 정례(頂禮)를 받으시옵소서. (제가 부처, 달마, 승가의) 그윽한 가피력에 감화받아 법계의 여러 중생과 함께 미타(彌陀)께서 서원하신 정도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다. 대한불교진각종의 해인

대한불교진각종(眞覺宗)의 불단(佛壇)에는 해인(海印)이 기재되어 있는데 “육자진언(六字眞言)에 의하여 성취되는 것을 기재한 것”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진각교전』(1960)에 “열반해인(涅槃海印)”이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열반에 대한 진리라는 뜻으로 사용한 듯하다.*

김탁박사/신종교 연구가